

격려사

신록이 푸른 빛을 더하는 5월, 생동하는 생명의 기운속에서 보조국사님 각령전에 추모의 마음을 올리며,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청빈한 수행자의 삶을 걸어가자고 선언하신 정혜결사의 정신을 사부대중 모두 가슴 깊이 돌아봅니다.

한국 불교의 중천조이신 불일보조국사의 열반 제805주기를 맞이하는 오늘, 한국 불교는 격변하는 사회의 한 가운데 서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신의 심화, 공생하는 공동체 정신의 급격한 붕괴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종단 역시 시대적 사명으로써 중생교화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더 충실할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고자 종단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대중공사를 통해, 종단과 불교를 위해서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선조의 근념을 등불삼아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허례허식이 아닌 수행을 중심에 두는 수행불교의 복원과 부처님 정법을 바로 세우는 정법불교의 대중적 확산이라는 정혜결사의 정신을 후대의 당연한 책무로써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안으로부터 자정하고 쇄신하여 종단에 대한 신뢰를 튼튼히 구축하고, 세상을 밝히는 불제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정진에, 함께하신 사부대중 모두 원력을 더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불제자들이 본연의 수행 정신을 재정립하고, 스스로 등불이 되어 혼탁한 사회를 밝히고 모두의 행복으로 회향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